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출판사 출판사는 간곳없고 한젼마만 남다

글_신동섭(출판기획자)

북에디터 게시판에서 처음 대필 소식을 접했다. 글을 올린 사람은 무척 흥분해 있었다. ‘국민정서와 한 출판인’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어젯밤에 대필 관련 기사들을 읽다가 완전 어이 상실”했다고 적혀 있었다. ‘어이 상실이라니 대체 무슨 내용의 기사기에 난릴까...’ 역시 기사는 흥미로웠다. 명진출판 안소영 대표와 한국일보 안형영 기자 사이에 긴장이 느껴졌다. 안 기자는 “그럼 대필 아니냐”고 계속 추궁했고 안 대표는 기획출판과 대필의 차이를 설득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대필논란보다 감독을 자처하는 안소영 대표의 입을 통해 최근 출판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혹자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겠지만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안 대표가 말한 기획출판이 더 다양한 책을 만들어 내는 건 사실이었다. 더불어 떠오르는 의문이 있었다. 왜 대필작가는 직업윤리(?)를 어겨가면서까지 언론에 이 사실을 밝혔을까, 안 기자는 출판담당 동료 기자들도 뻔히 다 아는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아닌 한젼마의 책을 통해 기사화했을까 하는 것이었다. 내가 알기로 지금이야 상품성이 떨어졌지만 황모 박사를 비롯해 몇몇 유명인의 잘 팔린 책이 대필을 통해 나왔다는 것을 기자들이 모를 리 없는 데도 말이다. 그만큼 대필에 대한 나의 문제의식은 무더 있었다.

어쨌든 인터넷을 뒤진다고 이런 의문이 풀릴 리는 없었다. 대신 한국일보의 ‘기획기사’는 큰 파장을 낳았다. 안형영 기자는 이미 “취재가 끝나” 있었고 출판사와 한젼마 씨는 위기관리에서 부족했다. 우려하던(?) 초고와 책 본문과의 대조까지 감으로써 독자들은 2006년 12월 현재 출판업의 적나라한 단면을 보고 말았다.

문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약으로 삼느냐다. 방법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대필이 불가피한 이상 “대필 작가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대필사실을 분명히 밝혀 출판 과정을 투명화”하면 된다. 안 대표는 대필작가 밝히는 것은 ‘이상주의’라고 말했지만, 작심하고 지켜보는 눈이 많으니 출판사들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 출판계 종사자로서 정지영 씨에게 그랬듯 한젼마 씨에 대한 미안한 마음 - 물론 그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책임을 그들이 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안한 마음 - 이다.

한젼마가 한국일보에 밝힌 자신의 입장을 읽다가 18년간 백남준의 ‘손’이 되었던 텔레비전 기술자 이정성 씨(현재는 백남준 작품의 보존·수리를 맡고 있다)에 관한 한겨레 인터뷰 기사를 떠올렸다. 이 씨는 1988년 과천국립현대미술관의 대형 비디오 탑 <다다익선> 이후, 1993년 백남준에게 황금사자상의 영예를 안겨준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관 출품작들을 비롯해 미디어 아트 대작을 만든 장본인이었다. 당시 이 사실



은 미술에 문외한인 나로서는 여간 당혹스러운 게 아니었다.

“새벽 2~3시에 작품 구상하고 오밤중에 국제전화를 뜬금없이 걸어요. ‘정성이, 금방 생각난 게 있는데, 요런 것 좀 만들 수 있어’ 하고 묻죠. 생각나는 대로 작업 얘기를 다 풀어놓고는 ‘할 수 있지?’ 하고 물어요. ‘예’ 하면 끝이죠. 제 기억에 그분 물음에 다시 되묻고 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 하면 무슨 말인지 감을 잡았죠. 그 뒤에 제가 알아서 대충 설계하고 시작품을 만들고 최종응낙을 받는 거지요. 간단한 말만해도 서로 통하니깐 그분도 편안했던거봐요”(2006년 2월 15일자 한겨레).

그야말로 백남준은 머리고 이정성 씨는 손이었던 셈이다. 한잼마 역시 “설치 미술품을 만들 때, 예술가는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밑그림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철물이나 이런 걸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철물을 다루는 전문가와 함께 작업을 한다. 이걸 공동작업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건 예술가의 작품이다”라고 항변했다. 더군다나 뇌라는 높은 도구까지도 신체의 일부로 인식한다지 않는가. 백남준 씨의 뇌는 이정성 씨를 자신의 일부로 생각했을 것이고 한잼마 씨의 뇌 역시 그 때 필 작가를 자신의 일부로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뇌가 어떻게 여겼건 나는 이러한 작업 방식에 동의하

지는 않는다. 특히 이정성 인터뷰 기사는 백남준이 “예술은 고급 사기다”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대부분 실제 작품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애초의 구상은 어긋나기 마련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끼어들지 않는가. 땀 냄새가 나야 진짜 ‘작품’이라고 내 주변의 작가들은 생각한다. 그런데 땀은 이 씨가 흘렸더니...

어쨌든 이건 내 생각이요 한 씨의 입장에선 이러한 생각으로 출판물을 생각하는 ‘실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보다 문제는 책 쓰기는 정신적 노동이 아니라 육체적 노동에 가깝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출판사가 한 씨의 입장에 끌려 다녔거나 혹은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자 어느새 출판사는 저만치 빠져있다. “그동안 기획출판이 유행하면서 당연시해온 잘못된 편집관행을 고쳐나가겠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왜 공식입장을 밝히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

요즘 출판계를 보며 느끼는 것은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책이 문화냐 상품이냐는 고민은 어느새 간 곳 없다. 물론 결론 없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고민이지만 그 고민이 있기에 출판이 출판다울 수 있는 게 아닐까. **한겨레**

‘맞춤형’ 은퇴이민 관련 책자 출간 붐



시장조사 통해 원하는 지역, 경제수준, 은퇴 나이까지 파악

최근 불고 있는 ‘은퇴이민’ 열풍과 관련해서 출판계에서도 은퇴이민 관련 책자들이 연이어 출간되고 있다. 《2억으로 즐기는 인생 2막》(중앙일보 시사미디어) 《생애재무설계》(21세기북스) 《성공을 꿈꾸는 한국인이 사는 법》(청림출판) 《딱 3년만 해외에서 살아보기》(들마루) 《은퇴이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성인당). 2006년 후반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이들은 약간씩 출간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은퇴이민’을 다루고 있는 책자들이다.

이런 책들의 대부분은 ‘동남아’ 국가로의 은퇴이민에 대해서 가이드 북 형태를 띠고 있거나 은퇴이민을 노후 생활 전략의 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은퇴이민을 원하는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보와 최소한의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책의 저자들 또한 실제로 은퇴이민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나 그 지역의 전문 취재기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퇴이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의 저자인 김기범 씨는 실제로 필리핀에서 오래 산 경험이 있고, 《2억으로 즐기는 인생 2막》의 저자는 이코노미스트의 취재팀이다.

이전의 이민 책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획되었다면 최근의 은퇴이민 책자는 시장조사를 통해 독자들이 원하는 지역과 경제 수준, 은퇴를 고려하는 나이까지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출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출간 붐과 더불어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은퇴이민청도 기존의 일본 번역서를 사용했던 가이드북을 한국의 도서로 바꿀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은퇴이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를 기획한 성인당 최성만 편집장은 “은퇴이민 책자의 출간 붐은 이런 책자의 시장성이 입증된 탓도 있지만 ‘은퇴이민’ 자체가 이제 한국인의 관심 분야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은퇴이민에 대한 관심이 장기적으로 계속 될 분위기인 만큼 출판계에서도 관련 책자의 출간은 계속 될 것이다. 이제 필리핀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한 이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다양한 책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

취재 이주연 기자